

수험생이 이겼다

'생명과학II' 20번 전원 정답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II 정답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책임을 지고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생명과학II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불이익 예상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기준에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들의 답안이 정답으로 바뀌어, 표준점수가 약 1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생명과학II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다른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위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중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입전형 일정에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

응시생, 전체의 1.5% 그치지

표준점수 하락에 상위권 불이익

"정시 예측 어려워 눈치작전 치열"

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이날 이어진 브리핑에서 "안전무결하게 출제를 하지 못한 출제기관으로서 깊은 책임과 사과는 드린다"며 "항소는 고만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평가원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입시 일정과 수험생들의 피해와 혼란은 이미 빚어졌다. 생명과학II 응시생은 전체 응시생의 1.5%에 불과하지만 서울대나 의대 등을 지망하는 이공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전원 정답 처리됨에 따라 기준에 5번을 맞췄던 수험생들은 표준점수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입시업계는 이번엔 생명과학II의 출제 오류가 인정됨에 따라 표준점수가 1점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교육부, 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0일 온전한 수능 성적이 나오지 못

하게 되자 당초 16일이었던 일반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오는 18일로 이를 연기하는 등 올해 수시전형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수시전형 합격자 등록일은 오는 18-21일로, 수시전형 미등록 총원 기간은 22-28일로, 수시 모집 총원 등록 마감일은 29일로 각각 하루씩 순연됐다.

이날 당초 예정보다 이를 빠른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대학으로서는 수시전형 자체에는 숨통이 약간 더 트인 상태다. 하지만 수시전형 최초·추가 합격자 확정 시 늦어지면 정시전형 일정은 그대로 유지돼 수시전형 총원 마감일 바로 다음날인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인 정시전형 원서접수에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여전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의 정시전형 이월 규모 확정이 늦어져 정시전형 학과별 선발인원이 얼마만큼인지 최종 확인이 늦어지면 정시전형 지원에서 눈치작전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수능이 예상을 넘는 '불수능'이었고 사상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졌던 만큼 수험생이 본인의 위치와 합격 가능 수준을 가늠하기가 더 어렵다는 변수가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부터 중학교 '찾아가는 백신접종'

광주 광산구 신가중 시작...24일까지

광주에서도 16일부터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날 광산구 신가중학교(78명)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에 나선다. 이번 백신접종은 광주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백신의 종류는 화이자다.

시 교육청은 92개 중학교를 목표로 이날 오후까지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 신청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목표로 하는 중학교 대부분이 신청을 마쳤으며, 각 학교 별 접종 인원은 5명~80명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1·2학년의 경우 1차 기준 80% 이상의 접종률을 보여 이번 사업에서 제외했다고 시 교육청은 밝혔다. 초등학교는 설문 결과 접종 인원이 너무 적어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접종 대상 학교와 인원을 정리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교 별 접종 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신청 인원에 따라서는 오는 27일까지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남 지역은 지난 14일부터 22개 시·군 단위로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해남 출신 박지영 신임 전남경찰청장 내정

신임 전남경찰청장으로 박지영(58·치안감·사진) 중앙경찰학교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15일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최승렬 강원경찰청장을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내정하고 박 중앙경찰학교장을 전남경찰청장으로 발령하는 등 치안정감·치안감 인사들을 단행했다.

신임 박 청장은 해남 출신으로, 송일고·조선대를 거쳐 동국대(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청장은 간부 후보 41기로 1993년 경찰에 입문해 담당서장,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전남경찰청 제2부장,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규(59·치안감) 현 전남경찰청장은 16일 명예 퇴직한다.

고흥 출신의 이명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은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는 이외 윤희근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유재성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송병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 각각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내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우수학술연구자 연구비 지원

세계적 의학저널 '란셋'에 논문발표 안영근 교수 1억 등 6명

전남대학교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 대학 위상을 높인 연구자들에게 '우수학술연구자 연구비' 1억원을 지급했다.

전남대는 최근 3대 국제학술지인 셀, 네이처, 사이언스 또는 영향력 지수(IF)가 이들 학술지 이상인 자매지에 단독 또는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에게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연구비를 시상했다.

이중 안영근 의학과(전남대병원장) 교수는 세계적 의학저널 '란셋'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우수학술연구자로 선정돼 1억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

안영근 교수는 관상동맥 중재술과 심장재생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아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환자에 적합한 항혈소판 제제의 단계적 감량요법을 밝혀내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순환기 분과 최고 학술전문지 '서클레이션'에 논문을 게재한 엄광현 교수를 비롯 김재국·황장연 교수 연구팀(전남대 선도연구센터 ERC), 이항범 교수, 이준승 교수, 양형재 교수 등도 세계 권위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공로가 인정돼 각 5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정성택 총장은 "우수학술연구자들이 전남대의 연구역량을 세계에 과시하면서 대학의 위상까지 높여줬다"고 감사한 뒤, "전남대는 개교 100주년 즈음에는 노벨상 후보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지진 나면 이렇게... 최근 제주 인근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5일 광주시 북구 태봉어린이집에서 열린 지진대피훈련 중 어린이들이 노란 연막 사이를 뚫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